

관객들이 이채은을 기억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풋풋한 학생, 다른 이에게는 이웃 사촌처럼 친근한 사람, 또는 푹 부러지는 성격의 전문직 여성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이 다채로운 퍼즐들은 이채은이라는 배우가 부지런히 작품 활동을 해왔다는 증거다. 그는 2005년 <빨간나비>를 시작으로 <송한나>, <모퉁이의 남자>, <거짓말> 같은 주옥같은 단편영화들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이후 <로맨스 조>로 화려하게 장편 데뷔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채은은 상업영화, TV 드라마, 웹 드라마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최근 72초 TV에서 만든 웹 드라마 <오구실> 시즌 1이 공개되었다. 이채은이라는 배우에게 가장 잘 맞는 플랫폼과 캐릭터를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캐스팅 과정이 궁금하다.

미팅하러 갈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당시 72초 TV라는 제작사도 몰랐고 웹 드라마라는 형식도 생소했는데, 시나리오를 보니 감성적인 내용을 담은 이야기고 여자 주인공 혼자서 끌고 가는 스토리여서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콘텐츠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즉각적이었다.

<오구실>을 비롯해 올해 출연한 TV 드라마 <프로듀사>, 그리고 영화 <오피스>로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

<프로듀사>가 방영 중일 때만 끝난 직후에 길거리에서 많이들 알아봐 주셔서 TV의 힘을 실감했다. 또, 내 작품이 영화관에 걸려도 가족들은 찾아가서 보기가 힘든데 공중파에서 방송하니까 할머니도 편하게 보실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도 좋았고. 그리고 배우로서의 마인드도 조금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소극적인 상태였다면, 상업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대중들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최근에 맡은 배역들이 거의 다 전문직 여성이라는 점이다.

회사원 전문 배우라는 별명도 생겼다. (웃음)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어려움은 없었나?

매일 똑같은 곳에 출근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겪는 것들에 대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긴 하다. 그 역할들이 내게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도 역할이 계속 들어온다.

한편으로 이채은 배우 하면 어린왕자 같은 이미지가 있다. 독립영화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역을 많이 맡아서 그런 것 같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안 시켜 줄 것 같다. (웃음) 마지막으로 학생 역을 했던 게 이광국 감독님의 <로맨스 조>였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상대역인 이다윗 배우와 나이 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또 나 스스로가 중고등학생의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배우에게는 실제 본인의 나이보다 관객들에게 몇 살 정도로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나를 고등학생처럼 봐주신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학창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낮가림이 심해서 가까운 사람들 하고만 소통하는 편이었다.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회성은 나이 들어서 발달한 것 같다. 친한 친구들은 내가 주변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곤 한다.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다. 고등학생 때부터 배우를 꿈꿨었나?

중학교 때부터 다른 장래희망 없이 영화배우만을 꿈꿨다. 성격도 외향적이지 않다 보니 혼자 속으로만 품고 있었다. 예고에 진학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 부모님은 내가 허황된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하고 싶으면 해보라는 식이었다. 재수해서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도 별다른 대외활동 없이 지냈다. 부모님이 이제 그만 취미생활 접고 취업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였다. 그때 이걸 내 취미생활이 아니고 배우생활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던 찰나에 독립영화를 만난 거고.

어릴 적에 영화를 좋아했었나 보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엄마랑 동시상영관에 자주 가고는 했다. 아주 어린 꼬맹이가 한 번 극장에 들어가면 앉아서 영화를 두 편이나 보고 나왔던 거다. 그때는 영화에 연출자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화면에 나오는 사람 들처럼 해보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 멀티플렉스가 생긴 이후로는 영화 팸플릿을 죄다 모아서 집에 쌓아 놓기도 했다. 걸뭇 들어서 혼자 영화도 보러 다녔는데 뭘 알고 그런 건 아니고 막연한 동경심에 그랬던 것 같다.

독립영화에 첫발을 디딘 건 유지원 감독의 2005년 작품인 <빨간나비>다.

그전에도 동기들 부탁으로 찍은 게 있었지만, '단편영화'라는 인식을 갖고 찍은 첫 작품은 <빨간나비>다. 같은 학교 선배의 작품이었는데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수상은 못 했지만 최민식 선배님이 특별언급을 해주셨다. 내가 찍은 영화가 영화제에 가고 누군



가에게 언급되는 걸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다. 비슷한 시기에 <송한나>, <비노, 달리자>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단편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이우정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송한나>, <웃 짓는 건 괜찮아> 그리고 <서울연애>에서 호흡을 맞추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다고 알고 있다.

이우정 감독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다. 나랑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 <비노, 달리자> 때 우정이가 스태프로 일했었다. 어느 날 우정이가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승낙했다. 이우정 감독이랑 작업하면 몸은 되게 힘든데 결과물에서 보람을 얻는다. 현장에서 저 친구가 지금 뭘 찍고 있는지 모르지만, 극장에서 결과물을 보면 우정이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나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 그리고 우정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을 확연하게 된다. 그때는 나도 그냥 관객이 되어서 영화를 관람한다.

<송한나>의 여주인공이 귀엽고 엉뚱한 구석이 있다. 실제 성격과 닮은 점이 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좀 엉뚱한 면이 많은 것 같더라. 가까운 사람들은 <송한나>나 <오구실>에 나오는 내 모습을 제일 좋아하고 또 그게 실제 나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우정 감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낼 줄 안다. 나라를 배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초기에는 대부분 같은 과 선후배의 작품에 출연했는데, 이진우 감독의 <모퉁이의 남자>는 어떻게 섭외가 되었는지?

이진우 감독님과 같이 작업하던 조감독님이 추천하셨다. 그때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미팅을 했다. 원래 시나리오 상의 여자 주인공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인상에도도한 캐릭터였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셨는지 감독님이 많은 걸 맞춰 주셨다. 캐릭터도 수정해주셨고, 촬영일정도 나한테 맞춰주셨다. 당시까지도 작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는데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프로덕션을 해주셨다.

2008~2009년이 본인에게 있어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다. <모퉁이의 남자>, <송한나>, <수진들에게>, <거짓말> 등 영화제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고 또 그 작품들로 영화제에서 연기상도 받았다.

집안에서 가족들도 나라는 배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배우 생활하는 게 돈 벌이도 잘 안 되고, 또 그 결과물을 영화제 바깥에서는 보기 힘들니까 뭔가 아쉬운 맘이 있으셨던 것 같다. 2009년 미장센단편영화제랑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연기로 상을 받고 난 이후에야 내 이름 앞에 배우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전에는 어디 가도 배우라는 말을 못 했다.

평소 영화제에서 본인 작품이 상영되면 지인들을 많이 초대하는 편인가?

나는 엄청 많이 부르는 편이다. 내 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고, 관객과의 대화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감독님들이 신기해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싶고, 나랑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이채은 하면 임오정 감독의 <거짓말>이란 영화가 떠오른다.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샤워할 때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선배에게 직언하는 장면 등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이 작품을 촬영한 게 이종필 감독이었다. 임오정 감독이랑 두 사람이 친했는데, 이종필 감독이 <모퉁이의 남자>에서 내가 연기했던 최영희라는 캐릭터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캐스팅하길 추천했다. 말했다시피,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에 담아 두는 편인데 <거짓말>에서는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칼럼리스트 듀나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배우 중 비속어와 욕설을 가장 예쁘게 하는 배우'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 본인도 동의하나?

그 글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내가 크게 언급되지 않던 상태에서 그분이 나라는 배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는 게 마냥 신기했다. 그런데 평소에 욕설은 전혀 쓰지 않는다.

2011년 즈음에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했고, 또 이때 길게 길렀던 머리를 잘랐다. 혹시 머리를 자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배우는 머리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판에 박힌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작품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러다 비슷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싫어졌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잘라버렸다. 그 후에 <좋은 이웃>을 준비 중이던 손원평 감독님과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당황하시더라. 상업영화 미팅을 갔을 때도 이전 작품에서 선보인 긴 머리가 사라져 있으니, 머리 잘라서 아쉽다, 다음에 같이 하자는 말을 들었던 적도 있다.

KBS 드라마스페셜 <태권, 도를 아십니까>에서 액션배우를 준비 중인 남자 친구에게 "니 인생 자체가 단역이야... 너 깨알같이 나오는 거 그거 찾다가 내 시력 다 버렸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극 중의 대사처럼 연기 생활을 하면서 마음고생이 있었나.

초조하고 조급한 생각이 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뭘 하게 될지 모르고 다음 행보로 정해진 것도 없을 때 초조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는 그걸 배우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거짓말



수진들에게

꽤 긴 시간 동안 단편영화에 출연하다가 2011년에서야 <로맨스 조>로 장편 영화 주연을 맡았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클 것 같다.

단편영화를 많이 하면서도 나처럼 장편과 인연이 닿지 않았던 사람도 드물 거다. 사실 <로맨스 조>는 세 번이나 거절했다. 말은 배역이 고등학생, 성인, 업소에 나가는 여성까지 소화해야 하는 거라서 부담이 컸다. 그래도 첫 주연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작품으로 해외영화제를 처음 경험해봤다. 로테르담영화제에 갈 때 감독님과 함께 갈 배우 한 명을 정하려고 제비뽑기했는데, 운 좋게 내가 당첨되었다.

상업영화에서 단역이 아닌 조연으로 출연한 건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 처음이었다.

<내 깡패 같은 애인>에서 대사 한두 마디 있는 간호사로 출연한 적이 있다. 그 영화를 연출하신 김광식 감독님이 <찌라시: 위험한 소문>도 연출했다. 어느 날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보여주시곤, 읽을 당시엔 생각지도 않던 미스 김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에 나를 섭외했다. 촬영 직전까지도 어리벙벙한 상태였다. 그때 감독님이 나라는 배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이 진짜 은인인 게, <찌라시>를 찍은 덕분에 <오피스>에도 캐스팅될 수 있었다.

촬영을 앞두고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다면.

시나리오를 처음 읽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캐릭터에 많이 맞춰가는 편이다. 배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가고 그 뒤에 표현해야 할 감정들은 내 안에서 찾아서 부각시키려고 한다. 대부분 당시 내 상태에 따라서 캐릭터가 결정되는 것 같다.

끝으로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말해 달라.

항상 똑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진행 이도훈 정리 송재상 사진 송기영
장소협조 앨리스의 티팟

S P E C I A L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서준영

서울독립영화제2009 독립스타상 수상

**SELECTED
FILMOGRAPHY**

영화

<회오리바람> (2009, 장건재) 독립스타상 수상작

<파수꾼> (2010, 윤성현)

<스피드> (2015, 이상우)

드라마

<반올림3> (2006, KBS2)

<당신뿐이야> (2011, KBS1)

<시리우스> (2013, KBS2)

2009년 서울독립영화제의 유일한 배우상 '독립스타상'이 처음 생기던 해.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던 철부지, <회오리바람>의 태훈을 연기했던 배우 서준영이 생애 첫 영화로 독립스타상을 거머쥐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그 해, 그리고 6년이 흘러 폐막식 사회자로서 서울독립영화제를 다시 찾게 되기까지.

종횡무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다양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배우 서준영을 만났다. 교복 태를 벗고 성인 연기자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표정들을 담고 있는 얼굴에서 태훈의 모습이 겹쳐졌다. 단지 사람이 좋아 연기를 한다는 배우 서준영과 허심탄회하게 나눈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최근 스크린과 TV 드라마, MC진행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편안하게 근황을 전해 주었으면 한다.

영화 <스피드> 개봉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류덕환 배우와 <너를 노린다>라는 2부작 단막극 촬영을 마쳤고 지금은 웹드라마 <뷰티마스터> 촬영이 한창이다. 잠 잘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교복을 오래 입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성인 캐릭터 역시 꾸준히 맡아 왔다. 다양한 연령층을 소화해낼 수 있는 본인의 매력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은 동안이란 말이 칭찬일 수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옛날 얼굴이 콤플렉스였다. 때문에 맡는 역할도 한정적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얼굴이 나오는 것 같다. 딱히 어떤 매력이 있다고 하기는 부끄럽다.

영화 <회오리바람>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도 바쁜 와중에 꾸준히 서울독립영화제 폐막식 진행을 맡는 등 독립영화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 서준영에게 독립영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듣고 싶다.

한국 독립영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중에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 악조건 속에서도 독립영화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그 중심에 서울독립영화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욱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회오리바람>이라는 독립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독립영화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뿐이다.

<회오리바람>은 배우 서준영이 아역도 조연도 아닌, 주연으로 등장한 첫 작품이다.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작품이자 본인에게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안긴 영화이기도 하다. <회오리바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회오리바람>은 우연찮게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았고, 더불어 개인적으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첫 번째 독립스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주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한 작품에만 특별히 더 거창한 의미를 두진 않으려 한다. 작품을 통해 장건재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내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영화의 배경이 겨울이다. 추위 속 배달 아르바이트, 철없는 10대를 거칠게 바라보는 시선과 구타 견디기, 겨울바다의 입수까지. 촬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듣고 싶다. 여름과 겨울에는 어떤 촬영이든 힘들다. 그렇지만 재밌지 않은가. 살아가면서 언제 한 번 겨울바다에 들어가 보고, 한여름 도심 한복판 땀별 아래서 땀 흘리며 달려보겠는가. 다만 겨울바다 입수의 기억 때문에 개인적으로 놀러 다닐 때 바다는 안 가는 편이다. (웃음) 당시 제작 환경 역시 어려웠을 것 같다.

열악했다. 지금도 작품마다 다르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파수꾼> 이후로는 독립영화 제작환경이 조금이나마 더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가끔은 '내가 지금 왜 이려고 있냐'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작은 자본으로 커다란 작품을 만들어내는 독립영화야말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기할 따름이다. 이런 영화를 좋아한단 말이야? (웃음) 처음 감독 눈을 봤는데 열정이 보였다. 이 사람과 함께 작업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치도록 혹은 질리도록 재밌었다. 경험이 많이 없을 때라 감독을 대하는 방법을 몰랐고, 감독 역시 배우를 대하는 법을 몰랐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만큼 즐겁게 촬영했다.



회오리바람

영화 속에서 태훈은 정말이지 고군분투다. 모두가 안 된다 고만 하는 10대의 사랑에 밀렸던 미정의 외면. 철없는 태훈의 행동들이 애잔하게 다가오기까지 영화를 끌여가는 배우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회오리바람>의 태훈이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연기 또한 미숙했기 때문에 작품의 스토리 라인을 가져가는 일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 또한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아 힘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회오리바람>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장 힘들었던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배우 서준영의 학창시절과 <회오리바람>의 태훈의 모습을 비교해본다면?

전혀 일치하는 점이 없다. <회오리바람>의 태훈이 등장하는 장면 중 나와 닮은 씬은 단 하나도 없다. 나 역시 석 보범생은 아니었지만, 시험기간에는 바짝 공부해서 평균 90점대를 웃도는 날라리였달까? (웃음)

영화가 개봉하던 당시 '어린이의 시점으로, 청소년의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라는 인터뷰를 남긴 적이 있었다. 6년이지났고 배우 역시 그때보다 더 어른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웃음) 지금 돌이켜보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 때 했던 연애와 성인이 된 후의 연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시절 어떤 대상과 하더라도, 늘 똑같은 연애가 아닌가 싶다. 단지 어른이 되었다는 무게감이 생겼을 뿐이지, 그 시절의 마음과 상대를 향한 행동들은 다르지 않다. 어린 친구들의 연애를 어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아서 아는데, 이걸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다. 그저 나이마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다가오는 새로운 사랑이 있는 것뿐이지 않을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회오리바람>을 청소년들이 본다면 본래 자신의 시선으로, 어른들이 본다면 당시를 추억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회오리바람>의 태훈을 다시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은가?

다시 촬영한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영화에서 태훈이 PC방에서 두드려 맞고 나와 공중전화에서 미정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있다. 미정이 전화를 받지 않자 태훈 혼자 감감하고 추운 겨울 밤 놀이터 앞에서 미정을 기다린다. 그 시퀀스를 다시 연기한다면, 그런 표정으로 기다리진 않을 것 같다.

<회오리바람>을 촬영할 당시에는 배역인 태훈과 비슷한 나이였다. 풋풋했던 그 시절의 감성과 모습들을,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연기자로서 성숙해진 지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진 않을까.

이제는 치기어린 모습이 잘 안 나오더라. 최근 고등학생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성인 연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 (웃음) 머리로만 알지만 표현이 참 어렵다.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연기가 있는 것 같다.

<회오리바람> 이후 <파수꾼>을 통해 독립영화 배우로 단단히 자리매김하며 다시 한 번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파수꾼>을 선택한 이유를 듣고 싶다.

장건재 감독의 후배였던 조감독이 나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윤성현 감독과의 미팅 자리에서 합격점을 받아 함께하게 됐다. 나 역시 윤성현 감독을 보자마자 이 사람과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나리오도 보지 않은 채 <파수꾼>을 선택하게 되었다. 사람이 좋아서 연기를 하고 있지, 작품을 골라가며 연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의리출연으로 크든 작든 다양한 역할로 많은 작품에 등장하곤 한다. 평소 함께 하는 스텝, 배우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

사람이 좋아 이 일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연기 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작품에 등장하다 보면 맡게 되는 역할도 다양해지는 것 같다.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역할이 있다면.

그동안 연기했던 모든 캐릭터들은 내가 낯은 알이라고 생각한다. 그 알이 부화를 했든 하지 못했든 어떻게 어떤 알만 예뻐할 수 있겠나.

그럼 질문을 바꿔서, 특정 캐릭터와 관련해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 전에 '<파수꾼>의 서준영을 잘 봤다'며 캐스팅을 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었다.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채로 4, 5년도 더 된 작품 안의 모습만으로 캐스팅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선택으로 보였다. 20대 때는 빠르게 변화하고 성숙해진다. 나 역시 바로 어제의 모습을 후회하기

도 하고 매 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과거의 모습만으로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결국 직접 만나보길 요청했고,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나와 캐릭터가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작품 참여를 취소했던 경험이 있다.

욕심을 부릴 법도 한데, 해야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인 것 같다.

나로 인해서 작품에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오디션에서 감독이 원하는 캐릭터와 내가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적당한 다른 배우를 추천하고 나오기도 한다. 연기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맞지 않는 것뿐이다. 경쟁 구도를 갖기보다, 누구든 함께 연기를 하는 내 동료와 자신과 맞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역할을 맡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다.

가리지 않고 모든 역할을 다 해보고 싶다. 사실 똑같은 조건을 가진 캐릭터라도 상대 배우가 누구인지, 어떤 사건에 부딪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캐릭터 역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다.

독립영화, 상업영화, 드라마, 여기에 최근엔 MC의 영역까지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제작환경의 차이나 각각의 매력에 대해 듣고 싶다.

적나라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웃음) 농담이고, 물론 모두 알다시피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제작환경은 어려움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독립영화 또는 단편영화를 계속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얻어가고 싶은 마음에서다. 사실 작은 영화, 작은 역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매체가 다르다보니 촬영하는 방법, 시스템이 다를 뿐, 어느 현장에 가도 그 열정은 똑같다. 누구든 내 작품에 대충 임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다보니 팬층도 다양할 것 같다.

숨어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팬들도 다 숨어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 주셔도 좋을 것 같다.(웃음) 영화 <파수꾼> 때와 일일 드라마 할 때의 팬층은 확실히 달랐다. 식당에 가거나 대학축제에 놀러 가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마다 본 작품도 기억하는 배우 서준영의 모습도 다르다. 이름은 몰라주실지언정 기분은 좋다. 그저 연기를 하는 것이 즐거움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일들이 있다면.

특별한 일을 한다기보다, 내게 몰랐던 버릇이 있단 걸 최근 알았다.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컵을 어떻게 잡는지 컵의 손잡이를 어떻게 만지작거리는지, 혹은 술잔에 입이 먼저 가는지 잔을 손으로 닦고 마시는지 유심히 지켜보게 되더라.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기억해두었다가, 연기하면서 캐릭터를 잡아갈 때 슬쩍슬쩍 따라해보곤 한다.

연기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을까.

평범한 회사원이 되지 않았을까. 욕심이 커서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가끔 '넌 연기자가 안 됐으면 사기꾼이 됐을 거다'라고 말 씀하시곤 한다. 네 살이 될 때까지도 말을 못해 걱정이셨다는데, 그런 아들이 커서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연기자가 될 줄이야.

아역배우부터 시작해 오랜 시간 연기자로 살아왔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들려 달라.

작은 호프 바 혹은 카페를 차려 즐거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요즘엔 말하는 사람들만 있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훌가분하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내가 직접 꾸리고 싶다. 언제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 그게 내가 연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뷰 김도란 사진 송기영 유수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

유다인

서울독립영화제2010 독립스타상 수상

SELECTED FILMOGRAPHY

영화

- <혜화, 동> (2010, 민용근) 독립스타상 수상작
- <강철대오 : 구국의 철가방> (2011, 육상호)
- <천국의 아이들> (2012, 박흥식)
- <올레> (2015, 채두병)

드라마

- <보통의 연애> (2012, KBS2)
- <아홉수 소년> (2014, tvN)

<혜화, 동>의 혜화는 겨울에 있는 사람이었다. 매일이 춥지만, 마음은 따스한 인물이었다. 5년이 지나 가을에 만난 배우 유다인은 최근에 어른이 되었다고 했다. 차가운 겨울 같은 시기를 건디는 법과 폭염이 지속될 때 슬쩍 그늘에서 피하는 법을 알게 된 성숙한 배우였다. 유다인은 <건빵선생과 별사탕>에서 연기를 시작해 <혜화, 동>에서 본격적인 주연을 맡았다. <혜화, 동>을 통해 영화에 대해 눈을 떴고,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으로 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녀에게 연기와 독립영화,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 들었다. 자신이 연기한 인물이 어디선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싶은 배우 유다인과의 이야기.

근황이 궁금하다.

이번 여름에 영화 <올레>를 찍었다. 내년 3~4월에 개봉 예정이어서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요즘엔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작품 시나리오도 계속 살펴보면서 지내는 중이다.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알고 있다.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인지, 배우가 된 이유 혹은 계기가 특별히 있는지 알고 싶다.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연극영화과에 들어간 후에도 크지 않았다. 이 길이 내 길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연극을 했는데, 공연 마지막 날 부모님이 오셨다. 아빠가 평소엔 무뚝뚝해서 칭찬도 안 하고 표현도 잘 못 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잘했다고 따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잘 웃지도 않는 분인데 웃는 모습을 보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부모님께 뭔가를 해서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 그때 처음 연기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첫 작품 촬영 때가 기억나나? 기억난다면 어떤 내용일까.

<건빵선생과 별사탕>이 첫 작품인데 찍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다. 예를 들어 장면이 넘어갈 때는 배우가 장면을 정리해주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 감독님이 마지막 표정을 주문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계속 연기를 했다. 감독님은 컷을 안 하고 계속 그 표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몰라서 계속 헤맨 거다. 그래도 감독님이 잘 봐주신 덕분에 작은 역할이었지만 한 에피소드에 나올 수 있었다. 원래는 이름도 없는 캐릭터였는데 이름도 생겼다. 내 이름 그대로, ‘다인’이라는 인물로 나왔다.

<혜화, 동>으로 연기를 인정받았다. 그 전에 힘든 시절이 있었는지.

<혜화, 동> 찍기 전 1년이 그랬다. <혜화, 동>을 찍기 전 1년 동안 일이 쉬는 기간이 있었다. 그때가 많이 힘들었다. 작품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혜화, 동>을 찍고 나서는 그 1년의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혜화를 이해하고 연기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힘들었지만, 내게 분명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혜화, 동>이 첫 독립영화이자 첫 주연작이다. 출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오디션을 봤다. 전에 단편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조감독님이 <혜화, 동>에서 조감독을 하게 됐다. 그분이 민용근 감독님에게 나를 추천해주셔서 오디션을 보게 됐다. 사실 <혜화, 동>을 찍기 전까지 독립영화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극 중에서 혜화는 많은 것을 감내하는 역할이고 극 전반을 끌어다가야 하는 역할이다. 연기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

<혜화, 동>을 찍을 당시에 연기를 시작하고 4~5년이 지났을 때다. ‘혜화’는 처음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득 안고 임한 역할이었다. 그만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크니까 한 장면, 한 장면 공들여서 찍었다. 내 한계치가 있는데 바라는 건 커서 굉장히 힘들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도 했고.

혜화는 미혼모면서 유기견을 지키는 사람이다. 극 후반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혜화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 노력한 게 있는지?

일단 민용근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혜화에 대한 생각이 비슷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혜화가 쪽 나온다. 그러다 보니 한 장면이라도 과하게 표현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감독님과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혜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미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영화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박혁권 선배에게 “왜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좋아한다. 그 장면을 찍기 전부터 그 장면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찍고 싶었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혜화가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거기선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남을 향해 마음을 말하는 순간이니까. 감정을 꼭꼭 눌러 담았는데 그 장면 찍기 바로 전까지 가슴이 쿵쾅거리고 들떠 있었다. 첫 테이크를 가는데 목소리가 너무 떠 버렸다. 감독님이 목소리 톤을 낮춰야겠다고 하셔서 다시 찍었던 기억이 난다.

반대로 다시 연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정말 많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혜화, 동>을 다시 한 번 봤는데 못 보겠더라. 한 일 년 전만 해도 워낙 좋아해서 다시 봐도 그저 좋았거든. 그런데 최근에 볼 때는 다 못 보고 꺼 버렸다. 우선 아무리 혜화가 감정을 누르는 캐릭터라고 해도, 나는 배우니까 눌러 담는 와중 표현하는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 상황, 혜화라는 캐릭터에 너무 빠져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다.

거리 조절을 실패한 거 아닌가 아쉬움이 들었다.

한편으로 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이모 기억해 줄 수 있어?”라고 연기하는 장면은 촬영 당시 마음에 안 들었다. 그 감정이 뭔지는 알겠는데 막상 연기를 하려니 부족한 느낌이

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 카메라가 들어오는 속도나 빛의 느낌이 혜화의 감정을 만들어주는 거다.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영화의 다른 요소들이 채워줬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다.

같이 출연한 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땠는지 듣고 싶다.

유연석 배우가 많이 배려해 줬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혜화가 처음으로 울음이 터지지 않나. 그때 내가 먼저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가 나만 찍고 있는데도 유연석 배우가 계속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 장면을 한 40테이크 찍었을 거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울어줬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네게 더 좋은 감정이 나올 것 같아?' 물으면서 연기하기 편하게 도와줬다.

박혁권 선배님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 유연석 배우랑은 붙는 씬도 많고 처음 영화 시작할 때부터 같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과는 시작 전에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냥 촬영 들어가면 인사하고 바로 연기를 했다. 연기로만 만나서 몰입이 잘 된 부분도 있다.

제36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혜화, 동>으로 독립스타상을 수상했다. 당시 서독제 상영 분위기나 느낌이 기억나는지.

관객 분들이 매우 진지하게 보셨던 게 기억난다.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해서 보시더라. 일단 나는 모든 것이 다 신기했다. 영화 상영부터, 수상을 하고 뒤풀이에 참여하는 등 영화제 경험 자체가 모두 처음 이어서 생소하고 재밌었다.

배우로서 첫 수상이었는데 긴장하지는 않았나.

나가기 전에는 긴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오히려 딱 자리에 서니까 차분해졌다.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은 배우 유다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혜화, 동>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연기가 좋아지고 영화가 좋아지게 한 영화다. 독립스타상은 그런 영화로 처음 받는 연기상이었다. 처음 '잘했어요'라고 칭찬을 받은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더 크게 느껴졌다. 내가 이걸(연기) 계속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다른 상들을 많이 받았고, 주목할 만한 여배우로 많이 꼽혔는데 <혜화, 동>이후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은지 궁금하다.

지금까지도 작품 제안의 대부분이 <혜화, 동>을 보고 들어온 거다. 나를 계속 도와주는 영화다.

그러하면 서울독립영화제는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내겐 <혜화, 동>이 본격적인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해준 느낌이다. 그래서 서독제를 생각하면 친근하고 반갑다.

독립영화 출신들에게는 '독립영화 배우'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나를 '독립영화 배우'라고 생각한다. '유다인, 독립영화에 많이 나오는 배우지' 하시는데 사실 내가 출연한 독립영화는 <혜화, 동> 한 작품밖에 없다. 그럴 때 보면 약간 신기하기도 하다.

<아홉수 소년>에서도 혜화와 상황이 비슷한 싱글맘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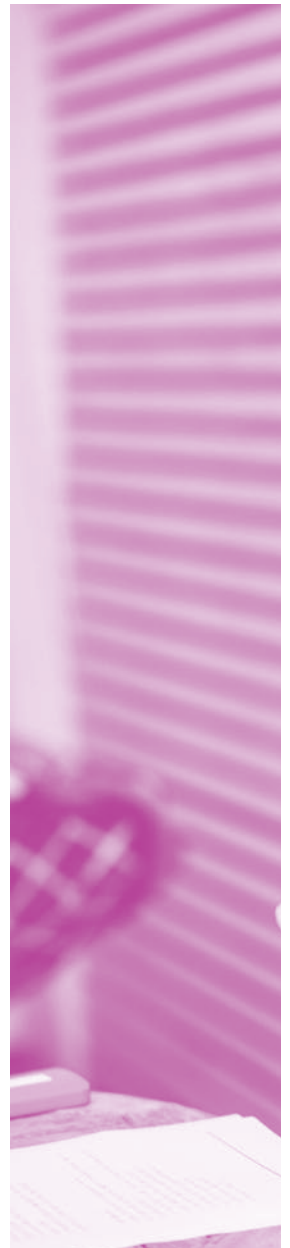
<혜화, 동>의 혜화와 <아홉수 소년>의 다인은 성격도 비슷하고 아이가 있다는 환경도 비슷했다. 그래서 뭔가 비슷한 패턴의 연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지만... <보통의 연애>에서 맡은 윤혜라는 인물의 성격에도 혜화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요즘 좀 더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영화, 드라마를 중형무진하며 활약하고 있다. 두 장르의 차이나 촬영장의 차이가 있다면?

드라마는 반응이 빠르고, 진행 과정에서 순발력도 많이 필요하다. 영화는 준비과정도 길고 감독님과 상의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다. 배우보다 감독님이 하는 게 크다는 생각도 든다. 반면에 드라마는 배우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 빨리 진행이 되고, 친해지는 시간도 많이 없고 촬영만으로도 바쁘니까. 영화가 더 가족적이기는 하다. 나는 둘 다 좋아한다. 서로 매력이 다르다.

카메라에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배우로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연기학원을 다니고 다른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충실할 때 연기에 도움이 되는 거 같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낼 때 부모님께 집중을 하고, 친구랑 있을 때 친구에게 집중하는 거다. 다른 걱정 없이 그 순간들을 잘 보내면 연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





지금까지 보여준 캐릭터와 다른,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인물인지.

영화 <언페이스풀>에서 다이안 레인이 연기한 '코니 섬너' 같은 캐릭터. <언페이스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단란한 가족이 교외로 이사를 간다. 이 가족에겐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주인공 코니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서 균열이 생긴다. 다이안 레인이 그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감정을 잘 표현했다. 보면서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빠져드는 심리'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연기하면서 호흡이 잘 맞았던 배우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연석 배우. 그리고 <보통의 연애>를 같이했던 연우진 배우. 그 친구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 조용하고 배려심도 깊어서 연기를 할 때 집중이 잘 되게

해주는 친구였다. 따로 술자리를 가지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역할로만 만나게 되니까 더 집중이 잘 된 것 같기도 하다. 오정세 선배님은 <아홉수 소년> 전부터 같이 하고 싶었다. 유쾌하고 어른스럽고 사람을 잘 챙겨준다.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나 순간이 있다면?

이번에 찍은 영화 <올레>에서 평범하고 밝은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결과를 보니 내가 연기한 것과 다르게 나왔다. 의도한 게 아닌데 약간 4차원인가, 싶은 역할로 보이더라. 촬영하면서 가장 재밌는 것도 그런 부분이다. 내가 연기한 것과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순간.

사람들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지.

<혜화, 동>을 통해서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관객들이 <혜화, 동>을 어떻게 봤으면 좋을지 생각해 봤다. 혜화가 어디에서 잘 살고 있겠구나, 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 내가 연기한 인물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맘이 들게 하는, 여운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배우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

그냥 지금처럼 대단한 걸 바라지 않고 현실에 집중하고 싶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순간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의 내가 정말 좋거든. 어떤 책에서 봤는데 '부모님께 받고 싶었지만 못 받았던 것들을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을 때가 어른이 된 거'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막 어른이 된 것 같다.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다 포함해서.

작품활동 외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다른 체험보다는 연애를 하고 싶다. (웃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묻고 싶다.

아직은 없다. <올레>가 봄쯤 개봉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시나리오를 찾아서 새 작품을 하려 한다. <올레>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는 아니지만 좋아해줄 사람들이 있을 영화다.

진행 김민범 사진 송기영

장소협조 강아지팩토리

혜화, 동



S P E C I A L

열정으로 연기하고 취미로 연기를 즐기는

이민지

서울독립영화제2011 독립스타상 수상

SELECTED FILMOGRAPHY

영화

- <부서진 밤> (2010, 양효주)
- <짐승의 끝> (2010, 조성희)
- <애드벌룬> (2011, 이우정) 독립스타상 수상작
- <서울연애> (2013, 정혁기·조현철 외)
- <세이프> (2013, 문병곤)

드라마

- <선암여고 탐정단> (2014, jtbc)
- <응답하라 1988> (2015, tvN)

창고 구석 어딘가, 웅크린 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것 같았던 그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 긴 머리를 자르고 동그란 이마를 살짝 드러낸 다음부터 유머는 물론, 애드리브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편영화 <부서진 밤>, <초대>, <세이프>로 베를린, 베니스, 칸영화제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이민지의 이야기다. 그는 이제 상업영화와 TV 드라마를 넘나들며 연기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그렇다, 지금 이 배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연기에 대한 목마름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내 방영되었던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이하 선암)이 3월에 끝난 후 최근 tvN의 <응답하라 1988>(이하 응답)가 방영을 앞두고 있다. 끝맛 같은 휴식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선암> 끝나고 <응답>에 캐스팅된 건 6-7월 정도다. 그 사이 4개월 동안은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볼까 하고 헬스장에 다녔다. 트레너들이 나를 '머슬매니아' 대회에 내보낼 작정으로 운동을 시켰다. 어깨가 딱 벌어지고 허벅지 근육이 푹 튀어나온 걸 보고는 소속사 이사님이 운동 그만두라고 할 정도였다. 최근에는 <서울집>이라는 단편을 찍은 조현훈 감독님의 장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응답하라 1988>이랑 촬영을 병행할 것 같다.

<서울연애>의 에피소드 중 <덤프시를 : 참회록>을 준비하면서도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 때는 권투를 두 달 정도 배운 걸로 하는데, 취미가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덤프시를 : 참회록> 준비할 때는 감독님들 추천으로 다이어트 할 겸 복싱을 배웠다. 화면에서 보는 내 얼굴이 항상 부어 보여서 이참에 확실히 살을 빼겠다는 생각에 요가도 같이 했다. 사실, 운동 말고는 꾸준히 하는 게 없다.

취미가 또 있지 않은가. SNS를 보니 약간의 '덕질'을 하는 것 같더라.

굉장하다. 피규어 쪽은 아니고 배우 덕질. <데어 월 비 블러드>랑 <미스 리틀 선샤인>을 보고 폴 다노에 푹 빠져 있다. 제이크 질렌할은 <투모로우> 때부터 팬이었는데, 최근에 그가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암> 덕분에 본인에게도 팬층이 생기지 않았나?

극소수이긴 하지만 생기긴 했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본 드라마여서 트위터로 '언니 팬이에요' 이라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도 길 가다가 알아보는 수준은 아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쌓여가는 중인데 소속사에서 활동에 제약을 가지 않는가?

전혀, 방해하고 있다. 지금 회사에 들어간 것도 여기가 독립영화에 큰 제약을 두지 않는 곳이고, 같은 소속사 배우들도 방생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니까.

대중적인 작품을 하면서 본인에게 변화가 오던가?

일단 잃은 건 없고 플러스 요인이 많았다. 독립영화에서는 이미지가 좀 어두웠다. <선암>에서는 웃음을 담당하는 캐릭터였는데, 처

음에는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예쁘게 보일 필요 없으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결과적으로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은 이민지라는 아이가 영화에서 본 거랑은 다르게 웃긴 거 시켜도 잘하고 가볍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은 것 같다. 이전 작품들에서의 역할 때문에 사람 자체가 어두워 보였는데 그걸 탈피한 느낌이라까.

최근에 머리를 짧게 자른 게 큰 효과를 본 게 아닐까?

신기했던 게 <선암> 오디션 볼 때도 그렇고 <응답> 오디션 때도 그렇고 두 감독님이 똑같은 주문을 하셨다. 두 분 모두 나한테 이마를 까보라고 하시고는 깔깔 웃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마라고 하더라. 같은 상황이 두 번 반복되니 놀리는 건가 싶었다.

본격적으로 독립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연기에 관심을 가진 게 어릴 적에 본 연극 한 편 때문이라고 들었다.

집안 환경 자체가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연극 <TV동화 행복한 세상>을 봤는데, 커튼콜 때 배우들이 박수를 받는 걸 보고 무대에서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일을 계기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에 있는 청소년 극단에서 연극을 배웠다. 당시에는 체육과를 갈지 연극영화과를 갈지 고민했는데, 연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득하게 해본 거라는 생각에 연극영화과를 선택했다.

연극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단편영화에 발을 들였다. 계기가 있었나?

처음에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2학년 때 학과장님 수업 방식이 나랑 안 맞아서 걱정하고 수업을 빠졌다. 교수님이 노발대발하셨고, 나는 또 어린 마음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면서 휴학을 했다. 그러던 중 내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십일세기십구세>를 준비하던 최아름 감독님이 연락을 주셨다. 그 작품을 본 김수지 감독님이 <잠복기>라는 영화에도 불러주셨고, 바로 이어서 <짐승의 끝>을 준비 중이던 조성희 감독님으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더 신기한 건 양효주 감독님이 <짐승의 끝> 편집실에 놀러 갔다가 화면 속의 나를 보고 연락을 주셔서 <부서진 밤>까지 연이어 출연했다는 거다.



연기를 막 시작한 타이밍에 <짐승의 끝>이라는 장편 영화에 주인공으로 낙점된 게 놀랍다.

내게 연락한 이후에 조성희 감독님이랑 피디님이 영화제에 가서 <이십일세기십구세>를 보셨다고 한다. 피디님은 내가 너무 웃는 상이라서 반대하셨는데, 감독님이 끝까지 우기셨다고 하더라. 그런 촌스러움은 어디 가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웃음) 덕분에 현장에서 많은 걸 배웠다. 조성희 감독님이 원래 미술을 하셔서 그런지 콘티에 딱 맞는 표정까지 세세하게 지시해주셨다.

독립영화관에서 자연스럽게 인맥을 쌓은 것 같다. 혹시 영화제 솔자리에서 캐스팅된 적도 있나?

문병곤 감독님의 <세이프>가 그렇다. 미장센단편영화제 솔자리였다. 거기서 <부서진 밤>의 양효주 감독님이랑 문병곤 감독님이 동갑내기라서 둘이 친해졌는데,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끼어서 술을 먹었다. 그리고 2년 후에 문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다. 여배우가 필요한데 그전까지는 여배우랑 작업해본 적이 없어서 연락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 문 감독님 전작이 칸에 출품된 적이 있어서 주변에서도 기대가 많았다. 황금종려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럴 줄 알았으면 따라가는 건데, 당시에는 오디션 과정 없이 캐스팅 된 건데, 작품 섭외가 들어오면 무조건 승낙하는 편인가?

생각보다 따지고 재는 게 없었다. 주변에서 시나리오 엄청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타이밍 좋게 작품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들어오는 족족 승낙했다. 야구 선수로 치면 3할 타율을 넘긴 정도였다.

그럼 공개되지 않은 작품도 꽤 된다는 말인가?

이상하게 밝은 영화를 찍으면 영화제에 못 가더라.

배우 이민지의 이미지를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종종 로맨스물은 찍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나를 알콩

달콤한 로맨스 비슷한 영화도 찍었다. <고추가 사라졌다!>라고 한주완 배우랑 같이 한 작품이 있는데, 일본 청춘만화 같은 발란한 느낌의 영화다. 로맨스에 대한 약간의 집착이 있는 것도 같다. 멜로는 나랑 안 어울릴 것 같고, 한국판 <브리짓 존스의 일기> 같은 로맨틱 코미디를 해보고 싶다.

꾸준히 단편 활동을 한 덕분에 현장에서 내공을 쌓았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촬영 현장이 있는가?

이우정 감독의 <애드벌론> 촬영 현장이 나를 풀어주었던 곳이다. 감독님이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자고 해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이 꽤 있다. 후반부 계단 씬에서 상대 배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배우는 겨울 촬영이고 또 너무 추워서 울었다고 한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영화랑 잘 맞겠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컷으로 쓰신 것 같다.

그 영화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연기상과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받았다.

뿌듯하고 신기했다. 연기로 상을 받을 날이 올 줄이야. 사실 나는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내가 연기 전공이라는 걸 모를 정도였고, <부서진 밤>이 영화제에 간다고 했을 때도 한 교수님이 “자네가 연출했나?”라고 물을 정도였다. 그런 내가 연기로 상을 받으니 학교에 강편치를 한 방 날린 기분이었다.

<부서진 밤>이 베를린, <초대>가 베니스, <세이프>가 칸 영화제에 출품되었다. 그런 점 때문인지 언론에서는 독립영화계의 전도연이라는 수식어를 안겨주기도 했다.

주목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말은 좀 민망하다. 상업영화에 처음 출연한 게 <손님>인데 현장에 가서 약간 놀림을 받았다. 평소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성민, 류승룡 선배님이 날 부를 때 “전도연이 어디 있어?”라고 하니까.

독립영화 진영에서 활동하는 동안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나?

실 때 고민을 많이 했다. 특히 <세이프> 찍은 이후에 출연한 작품 중에는 영화제에 못 간 영화가 꽤 있었다. 항상 촬영을 하고 나면 그 작품이 영화제에 출품되고는 했는데, 그 순환 고리가 끊기니 힘들어지더라. 2014년, 2015년에는 영화제에 간 단편이 하나도 없었다. 드라마라도 안 했으면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다.

그 시기를 어떻게 헤쳐 나갔나?

1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 셈인데, 그때 상업영화 쪽 문을 두드렸다. 소속사도 없이 혼자 프로필을 뽑아서 영화사 같은 곳에 돌렸다. 딱 1년만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손님> 오디션에 붙었고, 소속사도 생기니까 버틸 힘이 나오더라.

<차이나타운>에서 잠깐 나온 밀입국자 캐릭터가 강렬했다.

<차이나타운>은 <손님> 이후에 촬영하게 됐다. 그 영화를 연출한 한준희 감독님도 영화제 술자리에서 안면을 텄다. 감독님께서 짧고 임팩트 있는 역할이라고 제안해주셨는데, 밀입국자에 미혼모였다. 중국어 선생님한테 “워더하이즈(我的孩子, 내 아이입니다)”라는 한 마디만 배우고 그걸 계속 연습해서 갔다. 좋은 역할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도 감독님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대부분의 감독이 전작의 이미지를 보고 믿고 캐스팅하는 것 같다. 다만, 그런 식의 출연이 배우를 특정 이미지에 고정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욕심내고 싶은 장르나 역할은 없나?

작정하고 슬래셔 무비에 출연해보고 싶다. 본격 고어까지는 아니고 살인마 역할이나, 피 칠갑하거나 특수 분장한 캐릭터를 맡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예전에 김곡, 김선 감독의 <방독피>에 출연 제의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 작품을 했으면 특수 분장에 대한 욕구를 해소했었을 텐데.

캐스팅된 건 아니고, 내가 직접 지원하고 감독님들과 미팅을 한 정도였다. 당시 시놉시스는 없었고 캐릭터 설정만 있었는데, 실제 만들어진 영화에서 장리우 선배님이 연기한 늑대소년 역할이었다. 베드신이 있고 노출이 좀 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연을 고사했다.

만약에 상대역이 폴 다노였어도 거절했을 건가?

아, 그럼 해야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는 신하균 선배님이라면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말했다. 평소 내 이상형이자 덕질 최애 두 명이 바로 박해일, 신하균 선배님이다. <짐승의 끝> 덕분에

박해일 선배님을 생각보다 일찍 만났는데, 그때는 너무 떨려서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같이 대본 리딩하고 식사할 적에도 손이 덜덜 떨리더라. 연기할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적이 꽤 강하다. (웃음)

끝으로 연기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 또는 연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일단 박해일 선배님과 다시 한 번 작업해보고 싶고, 또 신하균 선배님을 뵙는 게 목표다. (웃음) 연기할 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보다는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배우 이민지가 미혼모가 되고 여고생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영화 연기는 감정표출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뭔가 대리 만족을 얻는 기분이다. 특히 독립영화가 내게 그런 장이다. 어쨌면 나는 스트레스를 풀듯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다만,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평소의 나는 생각보다 밝고 유쾌한 사람이다.



에드벌론

진행 이도훈 정리 최혁규 사진 송기영

장소협조 밴드 타니모션

S P E C I A L



이제 막
수확의 기쁨을
깨달은
초보 농부의 마음으로

김창환

서울독립영화제2012 독립스타상 수상

**SELECTED
FILMOGRAPHY**

영화

- <U.F.O.> (2011, 공귀현)
- <1999, 면회> (2012, 김태곤) 독립스타상 수상작
- <밤> (2012, 강원) 독립스타상 수상작
- <지각생들> (2012, 백승화) 독립스타상 수상작
- <야간비행> (2014, 이송희일)

드라마

- <학교 2013> (2012, KBS2)
- <초능력자> (2015, tvN)

영화 좀 본다 하는 이라면, 특히 독립영화에 애정을 가진 관객이라면 이 배우를 모를 수가 없다. 2012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세 편의 작품(<1999, 면회>, <밤>, <지각생들>)으로 독립스타상을 받은 배우. 86년생 아역 출신으로, 연기 경력은 무려 20년이 훌쩍 넘었다. 단편과 장편,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빛을 발하고 있는 김창환을 만나보았다.

아역 출신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연기 학원에 간 데서 시작했다. 유아무야 청소년기를 지났고, 군대를 다녀왔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연기더라. 스물다섯이 되었을 때, 정말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해오고 있다.

첫 작품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나?

어렸을 때 기억 속의 첫 작품으로 생각나는 건 <뽀뽀>다. 프로그램 안의 코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성인이 된 후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촬영한 첫 작품을 꼽자면 <U.F.O.>다.

지금까지 찍은 수많은 작품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나? 촬영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듣고 싶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U.F.O.>고, 그 다음으로 작업한 <밀월도 가는 길>도 많이 떠오른다. 겨울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추운 겨울에 진행해서 촬영 자체가 추위와의 싸움이었다. '추위와의 싸움'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을 받게 해 준 작품 중 하나인 <1999, 면회>다. 정말 추울 때 강원도 철원에서 찍었는데 주민들조차도 '살면서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는데 하필 이때 여기서 고생을 하느냐' 소리를 할 정도였다. 추웠지만 같이 신음을 내지르면, 서로 막 꺼안고 난로도 찢던 사소한 기억들이 남아있다. 사실 추억을 생각하면 작품 따질 거 없이 하나하나 다 좋았다.

서울독립영화제2012에서 <1999, 면회>, <밤>, <지각생들>로 독립스타상을 수상했다. 당시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현저히 다르다. 그때는 열심히, 더 많이 활동했다.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작업이 많지는 않다. 상 받은 이후 하필 바로 드라마를 하게 됐고, 드라마를 하고 나니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어떻게 보면 메이저로 나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독립

영화는 안 하겠구나', '바쁘겠네' 같은 여러 가지 선입견이 생겼더라. 어떤 자리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항상 첫 질문이 '안 바빠?'였다. 그러면 '안 바빠. 그러니 술을 마시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겠냐.' 이런 대답을 했다. 상을 받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두 편은 뭐라도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일 년에 다섯 편 정도로 줄었다.

최고를 친 느낌인 건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 물론 상을 받아서 좋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 아닌 사명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어깨가 무거워진 걸 잘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았다. 근데 그것도 다 본인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의 문제인 거다. 모든 일에 운과 타이밍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나는 그게 잘 들어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지만 편한 마음으로 넘어가려 했고, 결국 지금까지 잘 흘러와서 이런 근사한 기회로 서울독립영화제와 또 만날 수 있는 건 좋다.

그렇다면 서울독립영화제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무조건 좋다. 2010년도부터 진짜 연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과분한 상을 주셨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해에 세 작품이나 서독제에 걸렸으니, 그만큼 얼굴을 많이 비쳐서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상을 받을 거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감사하게 받았다.

수상과는 별개로 2012년에 일일자원활동가를 했다. 2010년에 연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각종 영화제에 영화를 보러 다녔는데, 그중에 서독제가 있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해 서독제에서 이난 감독님의 작품 <평범한 날들>을 봤는데 정말 좋아서 프로그램북에 사인도 받고 그랬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그 영화제에서 내 영화를 상영하게 된 거다. 내 작품들이 꼭 가고 싶었던 영화제에서 상영되니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다. 알고 보니 일일자원활동가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 해인 2013년까지, 작품이 없었음에도 일일자활을 했다. 작년에도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았다. 올해는 뿌려놓은 씨앗이 없기 때문에 거들 수확물도 없어서, 아마 서독제에 내가 출연한 영화가 상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서독제는 항상 내게 고향 같은 느낌이 있다. 다시 돌아가서 일일자활도 하고 싶다. 물론 상영작 배우로 인사드리면 제일 기분 좋을 거다.

본인의 출연작이 상영되기 전, 독립스타상을 받기 전에도 관객으로 서독제를 관심 있게 지켜봤나 보다.

서울독립영화제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서울과 경기권에서 하는 영화제를 꽤 보러 다녔다. 그게 연기 공부이기도 했다. 영화제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배운 게 많다. 뒤풀이 따라가서 술도 마시고 그랬다. 그런 자리들이 부러웠다.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1999, 면회



밤



지각생들

나누고,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코멘트를 들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던 게 되게 좋아 보였다.

김창환 배우에게 있어 2012년이 연기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인가?

무지 좋았다. 그해 당시 '마야 문명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있고 그 이후가 없다, 인류가 그날 멸망한다는 증거다'하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그때 진짜 2012년 말에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행복하니까. 정말 행복했다. 2010년 <U.F.O.>에서 만난 사람들, 또 거기서 파생된 인연과 함께 쉬지 않고 달렸으니까.

상업영화, 드라마, 독립영화 모두 경험했다. 각각의 현상이 어떻게 다른가? 분위기가 조금씩 다를 테니 연기하는 데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편하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 환경은 영화 쪽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작업 환경,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역할로 작품을 잘 해내야 한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보니 힘들더라.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 정신이 없어서 내가 무슨 연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 찍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할 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선 영화 작업이 아무래도 좋은 것 같다. 상업이든 독립이든, 장편이든 단편이든. 온전히 내 호흡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창환이라는 배우를 소개할 때 '독립영화 배우'라는 수식이 붙곤 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 기분이 어떤지? '독립영화'로 가두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나.

가둔다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독립영화 배우'라는 호칭이 좋다는 생각이 든 게, 상업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독립영화 배우'라고 하면 기본기와 내공이 탄탄한, 준비된 배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많이 좋아해주는 걸 보고 좀 민망하기도 하

지만 약간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겼다. 최근에 백은하 기자님이 <야간비행>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날 두고 '독립영화계의 조상님'이라고 했다. 순식간에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연기를 더 해야 하나 싶기도 했다. (웃음) 그런 수식어가 부담스럽긴 한데 감사하기도 하다. 상업영화를 찍든 드라마를 찍든 내가 지나온 자리를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좋더라. 절대 싫지는 않다.

지금은 소속사가 없으니 작품도 본인이 직접 고를 텐데, 어떤 기준을 두고 작품을 선택하나?

일단 섭외를 해 주시면? (웃음) 배우는 아무래도 선택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랑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줄 알아야 한다.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배우가 아닐까 싶다.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 때, 확 끌리고 재밌는 작품이면 된다. 역할의 비중이 작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를 당기는 작품. 그리고 이전에 같이 작업 했던 사람들이 제안을 주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있었다면 이것저것 많이 가리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점이 있다.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인데 쉬면 뭐하겠나. 시간이 되는 대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제안해준다는 건, 그때 호흡이 잘 맞았고 이번 역할에 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일 테니까. 그래서 기회가 닿고 여건이 되면 같이 작업을 한다. 주변 영화하는 사람들의 품앗이에 참여하는 거다.

빠곡한 필모그래피가 신기해서 쉬지 않고 일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했다. 제안이 들어오는 작업은 거의 대부분 소화를 하는 편인가?

그렇다. 어느 정도 나를 알아보고 제안을 해주는 거니까, 가려낼 것들이 별로 없다. 내가 원하거나 내게 어울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

말했던 캐릭터들이 조금 비슷한 데가 있다.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라거나. 카메라 앞에서 아직 보여주지 못한,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역할엔 어떤 게 있을까?

해보지 않은 역할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 몇몇 사람이 내게 선한 인상이 있지만 잘 보면 뭔가 다른 면을 가진 거 같다고, 그래서 사이코패스 역할이 잘 어울릴 거 같다고들 말하더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반듯한 거 같은데 이면에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묘한 역할.

어울릴 것 같다. 그거 말고 또 해보고 싶은 건 없나? 이를테면 멜로라던가.

멜로도 해보고는 싶다.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중년이 되어서라도. (웃음) 가장 해보고 싶은 건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형사물 같은 거다.

취미생활도 궁금하다. 연기 연습 외엔 어떤 일들을 주로 하나?

이전에는 영화제 다니면서 영화들을 즐겨 봤다. 아까 얘기했듯 그게 공부가 많이 된다. 하지만 요즘엔 상황 상 이전보다 영화제를 즐기기가 어려워져서, 축구, 풋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다행인 게, 영화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같이 공을 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겪고 있는 고충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되게 돈독해지더라.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땀땀에서 땀 흘린다.

혹시 연기 말고 연출 욕심은 없나?

아직까진 전혀. 연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연기 이외에 다른 분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기획 쪽에 약간 관심이 있다. 하지만 아직 한 우물도 제대로 못 봤는데 어떻게 다른 우물을 파겠나. (웃음) 보통 연출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 나는 딱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거 같다. 남들 하는 대로 글을 한 번씩 끄적여 보다가도 '에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시나리오 작가가 써야지. 배우는 연기나 해야지' 한다.

만일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뭘 했을 것 같나?

배우 말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배우가 되지 않았으면 뭘 과연 뭘 했을까? 뭘 잘했을까? 생각해봐도 딱히 뭐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더 연기를 열심히 하게 된다. 음, 농부? 시골에서 내 텃밭만 가꾸며 지내는 농부. 자급자족하면서 강아지 키우고 산책하러 나가고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듣고 싶다.

다 비슷한 말 할 거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 봤을 때 '아 저 배우, 저 사람 나오는 건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공연이 됐든 보고 싶다, 꼭 봐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가 가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재 나오니까 안 볼래, 연기 못하잖아, 이런 소릴 들으면 연기를 그만해야지. (웃음)

진행 이은지 사진 송기영



네트
위를
넘나드는
셔틀콕처럼,
불안에서
튀어
오르는

**SELECTED
FILMOGRAPHY**

영화

- <장례식의 멤버> (2008, 백승빈)
- <원 나잇 스탠드> (2009, 민용근, 이유림, 장훈)
- <누나> (2010, 이원식)
- <셔틀콕> (2013, 이유빈) 독립스타상 수상작
-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2013, 김경목)
- <소셜포비아> (2014, 홍석재)

드라마

- <너를 사랑한 시간> (2015, SBS)
- <가만히 있으라> (2015, KBS2)
- <프로듀사> (2015, KBS2)
- <식샤를 합시다 시즌2> (2015, tvN)

이주승

서울독립영화제2013 독립스타상 수상

올해 스물일곱이 된 배우 이주승은 어느덧 활동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청계천의 개>로 스크린에 나타나, 이듬해 <장례식의 멤버>로 얼굴을 알렸다. 서울독립영화제2013에서 <서틀콕>으로 독립스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작년에는 <소셜포비아>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꾸준히 쌓아온 독립영화 경력과 더불어, 최근에는 드라마와 상업영화에서도 활약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단편영화에서 장편영화로, 독립영화에서 상업영화로, 영화에서 드라마로. 배우로서 그는 여러 장을 거쳐 왔고, 경계를 넘나드는 동안 불안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불안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낸 듯했다. 그가 알려진 방법은 간단했다. 생각은 적게, 행동은 확실히, 그리고 불안을 즐길 것.

맨 처음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배우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 연극부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단편영화를 찍는 친구에게 단역으로 출연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라이브로 연극을 하는 것도 재밌지만, 결과물을 소장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 호감이 생겼다. 그때부터 영화에 빠졌다. 대학교 영화과 같은 곳에 찾아가서 영화 안 만드느냐고 묻고 다녔다. 공식 필모그래피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15편 정도를 찍었다.

중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시초였다. 그전까지 배우는 처음부터 배우로 태어난 사람만 하는 줄 알았다. 사기랄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학원인데 이름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지어서 돈 받고 수업해주는 곳이었다. 그땐 놀이공원에 가면 그냥 못생기든 잘생기든 다 명함 줬다. 매력 있다고. (웃음) 나도 정말 배우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다. 학원은 이상한 곳이어서 나왔다. 자꾸 재즈댄스만 가르치고! 돈도 부담스러웠다. 돈 안 들이고 연기를 하자 싶어서 연극부에 들어간 거다.

스무 살 무렵 김경목 감독의 <청계천의 개>, 백승빈 감독의 <장례식의 멤버>에 출연했다. 두 감독과도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건가?

맞다. 단편영화 찍을 때는 다 그런 것 같다. 워낙 좁은 바닥이다 보니까 누가 “이런 배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하며 소개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또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가 어느날 김경목 감독님을 소개받고 오디션을 봤다. <청계천의 개>로 장편영화를 처음 접하게 됐다. 그동안 ‘영화’ 했을 때 떠올리던 길이의

영화를 찍으니까 재미도 있고, 단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다. 그러다 김경목 감독님에게 백승빈 감독님을 소개받았다. 수능 보자마자 입시를 포기하고 <장례식의 멤버>를 촬영하며 열아홉 살 마지막을 보냈다.

서울독립영화제2013에서 <서틀콕>으로 독립스타상을 수상했다. 당시의 소감을 묻고 싶다.

내가 받은 첫 상이었다. 상을 받는데 진짜 울컥했다. 옆에 있던 이윤�빈 감독님이 동영상 찍어주셨다. 재밌었고 실감이 안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비에 굉장히 보탬이 됐다(이주승은 인터뷰 질문지에 적혀 있는 “상금으로는 뭘 했나?”라는 질문을 가리키며 웃었다). 생활고로 한창 힘들 때였는데, 상금으로 세 달은 버틸 수가 있었다.

<서틀콕>을 ‘가장 소중한 로드무비’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애정과 기억이 담겨있나.

지금까지 배우로서의 인생을 생각하면 군대 갔다 오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다. <서틀콕>은 제대 후에 찍은 첫 영화였다. 병장 때 이윤�빈 감독님이 면회 와서 미팅을 하고, 복무 중에 틈틈이 시나리오 공부를 했다. 군대 전화로 감독님과 통화하면서 준비했고, 또 로드무비다 보니까 운전을 해야 해서 말년 휴가를 나와 면회를 댔다. 제대하고 나가자마자 영화를 찍어야 하니 머리를 좀 길러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통 말년엔 하지 않는 일까지 맡아 하고 그랬다. 전역 신고하고 3일 후에 바로 촬영을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자마자 직업을 바꾼 거였다. 시기가 잘 맞았다. 해방감을 위해 여행을 떠나고도 싶었는데, 정말 여행이나 다름없는 촬영을 했다. 20회차 동안 영화를 통해 짝 여행을 다녔다. 내 마음하고 역할이 딱 맞았던 것 같다.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은 느낌? 나에게 참 소중한 영화다.

<서틀콕>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매번 바뀌는데, 부랑자가 동생을 위협할 때 내가 경계하며 쫓아내는 장면을 가장 많이 떠올리곤 한다. 원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동물적인 느낌이 좋았다.



그 '동물적'이라는 단어가 이주승 배우를 묘사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인 것 같다.

동물이니까. (웃음)

이주승 배우를 두고 한쪽에서는 "귀엽다, 동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동물적이다, 매섭다"고 말한다.

드라마에서 밝은 이미지의 감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나뉘는 것 같다. 얼굴에도 그런 면이 있는 듯하고. 흔하면서도 흔치 않은 얼굴이어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면 다른 사람인 줄 안다. 그럼 보면서 가장 '저건 나다.' 싶었던 인물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서툰>의 '민재'였다. 나머지는 거의 내가 아니지, 살인하거나 살인미수거나(웃음).

'독립영화 출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드라마나 상업영화를 하며 혹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전혀 부담은 없다. 드라마나 상업영화 감독님들 대부분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신다. 간혹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독립영화를 했던 사람이 새로운 매체에 와서 같이 일하는 것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더 많다. 오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다. 나한테는 실보다 득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현장마다 배우에게 요구되는 것도 다를 테고.

그래서 마음에 안정감은 없다. 항상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걸 계속할 수 있니까 좋은 거라고 느끼기도 한다. 이 직업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일단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깊게 생각하고 '나는 왜 항상 불안하지?' 파고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불안하지,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불안한 건데' 마음먹어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까지 침체되고 망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끔 다운될 때가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마음먹으려고 노력한다.

혹시 다른 직업을 꿈꿔본 적은 없나?

잘하는 게 있다면 생각을 해봤을 텐데 사실 잘하는

게 없다. 다재다능한 배우들은 쉴 때 뭔가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던데. 투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럽다.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해서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은데 그건 거의 같은 직업이니까. 태권도를 오래 하긴 했지만 갑자기 사범을 할 수는 없을 거 같다. 애들 가르치던 중에 "나 촬영 갈게" 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웃음)

연출에 대한 욕구도 있나?

연출을 굉장히 꿈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게 된다.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연출은 힘든 일이다. 내가 다섯 작품을 촬영하는 동안 감독님들은 아직도 한 작품을 편집하고 있다. 작업의 기간부터 일하는 양까지 아예 다르다. 배우를 하다가 연출을 하는 건 그래서 힘든 일인 것 같다. 확실히 더 장기간이니까.

그럼 써둔 시나리오가 있나?

쓰다가도 매번 90퍼센트 정도 가면 찢어버린다. 생각이 항상 바뀌니까. 한번 아니다 싶은 건 과감하게 찢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공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는데, 그 공을 들여 다 찍고 편집하다가 그때 가서야 이건 아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확신이 드는 글을 쓰게 되면 '이건 100퍼센트 까지 갈 수 있다' 느낌이 오지 않을까.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최근에는 딱히, '아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생각해본 건 없다. 뭔가를 하겠다고 그거 하나에 매달리면 하고 나서 허무해지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앓으려 하고, 다 즐길 자신이 있다는 마인드로 살고 있다. 다만 요즘 드라마를 계속하다 보니 이제 다시 영화를 통해 무거운 역할을 맡아보고 싶은 건 있다. 길게 준비하고 체력이 방전될 정도로 에너지를 들여야, '무언가 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다.

평소에 다른 배우들 연기도 많이 보고 참고하는 편인가?

당연히 많이 본다. 참고한다기보다는 그 연기, 그 캐릭터의 '처음'을 많이 생각한다. 어쨌든 모든 장면은 텍스트에서 시작했을 거 아닌가. 처음엔 글자였던 걸,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거다. 그런 식으로 처음을 생각하고 나를 보면 다른 게 나오는 것 같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은 저런 생각

을 했구나, 하면서. 공부라기보다는 내가 재
밋어하는 거다.

**특별히 좋아하는 배우나 닮고 싶은 배우가
있나?**

물론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가장 좋지만, 오
랫동안 배우 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연기를
순수하게 즐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제일 멋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민 선배님이나 황정
민 선배님 같은 분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
는 분들이 좋다.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오
래 하는 배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 중이다. 이래서 배우
들이 불안해하는 거다. (웃음) 내가 몇 개의
작품을 할지도 모르고, 어떤 작품의 어떤 역
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가능한 이 불안감
을 즐겨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을 즐길 수가 있나?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고 그 상태에서 아
무 나쁜 생각 없이 산다면, 사실 그렇다고 해
서 다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불
안감은 줄일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뛰어난
선배님들일지라도 다음 작품이 어떻게 될지
는 알 수가 없지 않나. 미래는 당연히 모르
는 건데 그걸 알려고 조바심을 내면 더 불안
해진다. '다음 작품은 뭐지? 작품 언제 들어
오지?'하며 전전긍긍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
다. 작품 들어가서 역할에 집중하기 전까지
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다. 물론 생활이 아
주 어려워지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
겠지만, 내가 당장 먹고살 수 있고 건강한 신
체와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 확신이라는 건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인가?

그렇다. 나는 조금씩, 조금씩 잘 되어 왔다. 뼈격거리기도 해봐야 슬럼프도 오는 건데 아
직까지는 없다. 끊임없이 했으니까. 사실 내가 지금 불안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무례한 걸 수도 있다. 나는 정말 운 좋게, 쉬지 않고 계속 해왔다.

**마지막 질문이다. 곧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가 시작된다. 꾸준히 독립영화를 해온 만
큼 서울독립영화제와의 인연도 오래됐는데 '서울독립영화제'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음, 조영각 집행위원장님? (웃음) 조영각 위원장님과 김동현 사무국장님 생각이 먼저
난다. 첫 번째 인디트라이앵글(서울독립영화제 사전제작지원 프로젝트)로 <원 나잇 스
탠드>를 같이 하면서 정이 쌓였다. 서울독립영화제를 가면 고향 같다. 가까운 친척, 반
가운 가족을 만난 것처럼 좋다. 올해도 시간이 되는 대로 영화 보러 놀러 가려고 한다.

진행 차한비 사진 송기영

장소협조 상수동카페

S P E C I A L

어떤 사연도 담아낼 수 있는 얼굴

이상희

서울독립영화제2014 독립스타상 수상

SELECTED FILMOGRAPHY

영화

<중심, 소소> (2012, 김정인)

<철원기행> (2014, 김대환)

<영도> (2014, 손승웅)

<높이뛰기> (2014, 김진유)

<남매> (2014, 박근범) 독립스타상 수상작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배우 이상희의 필모그래피에는 유독 사연 있는 인물들이 많다. <충심, 소소>에서는 탈북한 뒤 중국의 안마방에서 일하는 조선족 충심을, <남매>에서는 어머니의 자살을 목도하고 남겨진 가족까지 챙겨야 하는 여고생 소영을 연기했다. 최근 개봉했던 <영도>에서 연기한 미란 역시 비밀을 안고 영도를 찾아가는 인물이다.

작년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남매>로 독립스타상을 수상하고, 올해 제5회 사할린국제영화제에서 <철원기행>으로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쥔 그녀. 묵묵히 표정과 눈빛으로 우여곡절을 담아내던 배우 이상희의 얼굴에서 묵직한 사연을 건어냈더니, 말간 미소가 가득하다.

연기를 전공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궁금하다.

영화를 되게 늦게 접했다. 대학교 1학년 때쯤. 그런데 영화가 정말 좋아서, 내 영화를 하고 싶어졌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 연기를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연기하고 싶다', '영화 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도 했다. 그러다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일을 그만뒀다.

혹시 무슨 전공이였는지 물어도 되나?

간호학을 전공했고, 간호사로 일했었다.

영화가 좋아서, 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찾다가 연기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연출이나 다른 영역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 있나?

없다.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포털 사이트 필모그래피에는 <시선>이 첫 영화로 나온다. 데뷔 초에 공포영화에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인터넷에는 그게 첫 영화로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첫 영화는 아니다. 그 전에 학생들 영상과제로 연기를 시작했다.

<시선>은 오디션을 봐서 들어갔다. 사실 무서워서 공포영화를 잘 못 보는데, 찍을 땐 안 무섭더라. 찍는 건 안 무서웠는데, 또 만들어진 거 볼 때는 좀 무서웠다. 기억나는 건, <시선> 찍을 때가 좀 무식하게 연기할 때였다. 목 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연기하다가 숨을 참아버린 거다. 그러다가 잠깐, 한 3초 정도 기절한 적이 있었다. 저산소증으로. 그게 생각난다. 목 졸린다고 상상을 하면서 참았던 것 같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금방 일어나서 오렌지 주스 마시고 다시 했다. (웃음)

여러 단편을 비롯해서 꾸준히 독립영화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독립영화 현장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충심, 소소> 현장이다. 다 도둑 촬영이기도 했고, 현장에서 참 일이 많았다. GV 때 이미 많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게, 감독님이 한국으로 치면 월셋집을 빌려서 안에 마루를 깔고 하면서 세트를 만들었다. 그 안에서 몰래 촬영하는데, 밖에서 그걸 본 주민이 신고를 한 거다. 밖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은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잡혀가고, 안에 있던 사람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다. 그때 나는 노트북이랑 하드를 들고 도망갔던 것 같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현장이라 기억에 더 남는다.

아,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단편을 하나 찍고 왔다. 감독님하고 촬영감독님만 한국 분이시고 다 프랑스 현지 스태프였는데, 되게 신선했다. 뭐랄까, 스태프들이 각자 자기 개성이 다 살아있달까? 여러 사람 다 자기 개성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 서로의 색이 분명한데도 영화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내니까. 말은 안 통했지만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 색깔들이 고스란히 빛이 나고, 그걸 받아준다는 느낌이 되게 좋았다. 나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새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도 같이 융화되는 게 미덕이라 여기는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나 싶었다. 그래서 부럽기도 했다.

처음 연기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혼자였을 텐데, 지금은 소속사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소속사의 들어가기 전과 후의 달라진 점도 궁금하다.

소속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박)종환 오빠랑 (이)민지는 이전부터 알던 사람들이는데, 두 사람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니 그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좀 커지더라. 딱히 그렇다고 전보다 교류가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서 좋다' 하고, 나 혼자. (웃음) <남매>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캐스팅 과정이 궁금하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박근범 감독님 작품이 내 출연작과 같은 섹션에 출품됐다. 감독님이 상영 때 날 봐주었다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들어간 후에 같이 작업을 하자고 연락을 해 왔다.

<남매>는 재개발 지역의 모습을 아이들의 모습에 주목해 풀어낸 점이 인

상적이었다. 특히 '소영'은 어머니의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고, 빛이 있는 아버지애 남동생까지도 챙겨야 하지 않나. 그래서 친구들과의 흐트러진 관계까지 회복할 여유가 없어 보이는 아이인 것 같다. '소영'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했나?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보여주실 때마다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다. 내가 느끼기엔 전혀 다른 톤의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시나리오가 너무 급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걸 상상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감독님이 되게 심플하게 답을 주셨다. '아닌데, 이거 다 똑같은 애긴데? 이거 누나가 동생 구하러 가는 애긴데?' 라고.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아, 내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한 마디에 훨씬 더 정서에 집중하게 된 것 같다. 이런저런 배경이나, 이 친구의 상처나 트라우마보다도 '동생을 생각하는 누나'를 생각했다.

친구 역은 <어느 날 갑자기>를 연출한 유지영 감독이더라. 놀랐다.

연기 진짜 잘하지 않나? 동료 연출자가 주인공을 해야 하는 게 KAFA 기수의 룰이다. 재밌는 게, 그래서 원래 유지영 감독님이 '소영' 역할이었던 걸로 안다. 대본 리딩하러 갔을 때 얼핏 들었다. 그때 리딩을 하러 가서 유지영 감독님을 처음 만났는데 얼굴이 참 좋았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개성 있는 얼굴이라서. 한 번도 안 맞춰보고 바로 리딩을 하는데, 감정이 다 오더라.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다. 덕분에 살았지 뭐. (웃음)



남매

아, 엔딩 크레딧을 보니 각본에 이름이 올라가던데?

감독님이 혼자 다 하신 건데, 내 이름도 올려주셨더라. 보고 깜짝 놀랐다. 감독님이 대본을 바꿔 올 때마다 '이거 어때?', '애 느낌이 어떨 것 같아?' 하면 옆에서 '애는 여기서 이러지 않을까요?'하고 내 의견을 말한 정도지, 진짜 뭐 한 건 없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름을 올려주셨더라.

감독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 편인가?

감독님이란 얘기를 많이 한다. 보통 프리프로덕션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촬영에 들어간 뒤 현장에서는 각자 정신없고 바쁘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프리프로덕션 당시 감독님과 이야기했던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그 위에서 내가 연기를 하는 건 분명하다.

서울독립영화제와의 인연도 이야기해보고 싶다. 작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남매>로 독립스타상을 수상했다. 그때 기억이 어떤지 궁금하다.

촬영 중이라 현장에서 전화로 수상 소식을 들었다. 듣고 나서 바로 현장에 있는 조감독님한테 '저 서독제에서 상 받았대요.' 라고 했다. 상업영화 현장이었는데, 나는 되게 작은 역으로 나오는 중이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들 와서 축하해 주시고, 덕분에 주목받았다. (웃음) 좋은 기억이다. 상을 직접 못 받은 건 아쉽다.

서울독립영화제를 배우로 찾았고, 일일 자원활동가도 한 걸로 안다. 관객으로 찾은 적도 있나?

서울독립영화제는 2012년도에 <충심, 소소>가 출품돼서 처음 가고, 그 이후로 매년 갔다. 개막식도 다 가고, 작품도 찾아보고. 특히 작년 개막식이 좋았다.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좋더라. 공연도, 개막작도 너무 좋았다. 김동원 감독님께서 몇 마디 하시는데도 울컥울컥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 기운이 다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서독제 하면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일일자원활동가를 할 땐 기념품 판매도 했고 GV 때 마이크 전달도 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념품을 많이는 못 팔아서 안타깝다. (웃음)

가장 최근에 개봉한 장편 <영도>를 비롯해 <충심, 소소>, <남매> 등 여러 단편에 출연했다. 전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캐릭터들을 특유의 묘한 표정과 분위기로 고유의 캐릭터로 승화시킨 것 같다. 특히 단편의 경우에는 시간 등의 제약으로 배우가 이른바 행간을 연기로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역할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편인지, 혹시 장편과 단편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장편, 단편에서 다른 지점은 딱히 없다. 내가 어떤 식으로 배역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진짜 잘 모르겠다. 다른 배우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모르겠다. (웃음)

그냥 대본을 읽으면서, 이 친구(말은 배역)는 어떤 아이일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지금 심정이 어떨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한다.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희한하게 촬영이 임박해야 약간 보인다. 그 전에는 잘 안 보이더라. 촬영하다가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보이는 모습을 따라가는 편이고. 촬영이 끝나서도 얼핏 인물이 보일 때가 있다. 어차피 이 친구를 내가 완전히 알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보이는 모습에 충실하려고 한다.

다양한 캐릭터들을 소화해왔지만 분위기로 따진다면 비교적 묵직하고 슬픔을 가진, 사연 있는 역할들이 많았다. 이렇게 어두운 캐릭터를 소화하다 보면 작품에 몰입하는 만큼 실생활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무거운 캐릭터를 연기하거나 무거운 영화를 할 때는 진짜 예민해진다. 현장에서 그 예민함이 정점에 달한다. 영화 끝나고 나면, 정서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기운이 없다. 탈진하는 느낌. 어쨌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예민해진 만큼 집중을 하게 되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다. 정서는 오히려 메마르고. 며칠은 그렇게 앓다가 다시 돌아온다.

촬영 후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다른 취미가 있나?

<무한도전>을 본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돌아와서도 몰아서 네 편 봤다. (웃음) 완전 초기부터 골수팬이어서, 봤던 거 또 보고. 아마 제일 꾸준히 하는 취미가 아닐까 한다. 보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웃는다. 이제는 밝은 캐릭터도 하고 싶을 것 같다. 아니면 따로 해 보고 싶은 역할이 있나?

<응답하라 1988>에서 (이)민지가 하는 역할 같은 거? (웃음) 그런 발랄한 역할도 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작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해진 차기작 계획이 있는지.

프랑스에서 작업한 단편이 최근 작업이다. 차기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야기 중이다.

진행 음소정 사진 송기영

장소협조 빈책



S P E C I A L

가만히 집중하는 눈동자

변요한

서울독립영화제2014 독립스타상 수상

SELECTED FILMOGRAPHY

영화

- <토요근무> (2011, 구은지)
- <목격자의 밤> (2012, 박근범)
- <들개> (2013, 김정훈)
- <소셜포비아> (2014, 홍석재) 독립스타상 수상작
- <마둔나> (2014, 신수원)

드라마

- <미생> (2014, tvN)
- <구여친클럽> (2015, tvN)
- <육룡이 나르샤> (2015, SBS)

변요한은 조심스러운 동시에 태연하다. 한참 눈을 맞추었다가 글로 써낸 듯 선명한 대답을 한다. 새삼 <목격자의 밤>에서 그를 보았을 때, 서늘한 밤 편의점에서 묵묵히 걸레질하는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막막한 와중에도 고요하던 그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생각해 보면 변요한이 보여준 인물들은 다 그랬다. 조심스럽다는 건 소심한 게 아니고, 태연하다는 건 뻔뻔스러운 게 아니다. 스크린에서 그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스크린 바깥의 그 또한 그러하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근황부터 묻겠다. 요새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것으로 안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촬영 중이다. 인터뷰 이후에도 촬영장에 가야 한다. 그래도 서울독립영화제 인터뷰라면 당연히 해야지. 이번에도 <타이레놀>이라는 출연작이 초청되었다!

공식적으로 첫 작품이 단편영화 <토요근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학교에서도 연극으로 연기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 첫 작품'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공연을 해 봤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출연했던 건 <택시드리벌>이란 작품이었다. <들개>에 같이 출연한 박정민이 연출했다. 그 작품 준비할 때 <토요근무>를 같이 찍었다. <택시드리벌>은 동기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 연극이다. 여름에 더울 때 연습실에 다 같이 앉아서 게임하고 장난치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한편 <토요근무>는 영상을 처음으로 접한 순간이었기에 아무것도 몰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다. 두 작품에 대한 기억이 한 시기에 공존하기 때문에 두 작품 다 의미가 크다. '독립영화 배우'로 불리곤 했다. 어떻게 보면 배우를 특정 영역으로 한정 짓는 호칭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이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어떠한지.

아무렇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다. 내 이름 앞에 붙는 호칭은 내 족보다. 이를테면 내 이름이 '변요한'이라서 나는 '변요한'으로 산다.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이 이름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방법을 고민한다. '독립영화 배우 변요한'이란 타이틀도 마찬가지다. 이 이름을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바꾸고 싶지도 않다. 내가 '독립영화 배우'라는 내 이름을 빛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 <타이레놀> 상영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 더 기뻐했던 건 '나에게 또 소통할 기회가 생겼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여러 단편 독립영화에 출연했다. 촬영 과정마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다. <재난영화>의 게릴라 촬영

이나 <목격자의 밤>의 야간 아르바이트 장면 같은 건 특히 힘들었다.

모든 촬영장에 에피소드가 있다. 작품을 만들려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들어가야지 않나. 그러다 보니 공간이며 품이 드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기서 오는 에피소드가 많다. <목격자의 밤> 때는 전기를 몰래 쓰다가 걸려서 싸우기도 하고, <재난영화>에서는 콘서트장을 촬영하려는데 안에 공연팀이 있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겨우 들어가서 한 장면 찍고 얼른 나오고 그랬다. 워낙 도둑촬영이 많다 보니까 콩닥콩닥한 마음으로 임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

<소셜포비아> 때는?

감독님들께겐 각자의 성향이란 게 있는데, 내 생각엔 절대 성향이 잘 맞는다고 해서 영화가 잘 찍히는 게 아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작품의 메시지를 오롯하게 응집하고 싶어서 서로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이 좋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홍석재 감독님과 나는 성향이 정말 안 맞는다. 추구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소셜포비아>를 통해 만나면서 정말 많이 싸웠다. 재밌는 건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나서 서로 편안하게 작품을 놓고 얘기를 나눌 때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던 거다.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지려고 하면 장애가 많지 않나. 가식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데 작품으로 만나서 싸워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부가적인 성향들을 알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끝나고 나서는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웃고 심한 장난을 쳐도 되는 사이가 된다. 그래서 작품이 끝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얻는 것 같다.

연기하는 측면에서 고충도 있었을 듯한데. <리타르단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기 같은.

우선 말하면 석연주 감독님이 처음 찾던 배우는 온화하고 순둥순둥한 이미지였다. 스텝들이랑 얘길 하다가 변요한이란 배우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내가 순둥순둥하지 않고 이미지가 되게 달랐던 거다. 출연을 결정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감독님의 고민하는 눈빛을 봐 버렸다. 그 갈등을 봐 버렸어!(웃음) 말없이 밥을 다 먹고 나서 감독님이 원하는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피아노곡 하나를 계속 연습했고, 감독님이 소개해준 피아노와 친구들이랑 만나 봤다. 감독님이 원하는 게 뭐지? 어떤 이미지를 바라는 걸까? 계속 생각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의 성향

을 보려고 노력했다. 결국엔 잘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촬영에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다. 이게 참,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많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기 앉아서 음악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싶더라. 그게 좋았다. 피아노도 실제로 쳤는데 아쉽게 완성본에는 쓰이지 않았다.

<타이레놀이>은 어땠나?

<타이레놀이> 때 단편을 정말 오랜만에 찍었는데, 촬영 이틀째가 삼 일째 '아, 단편 진짜 어렵다' 싶었다. 장편은 어느 정도 흐르는 대로 갈 수 있다면 단편에선 매 순간 선택하는 표정이나 액션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선택하는 지점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 통스러웠다. 근데 같이 나온 나철이라는 친구가 액션을 잘 줘서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시너지가 생기겠다 싶더라. 생각을 바꾸니까 잘 됐다.

독립영화를 같이 만들었던 분들과 꾸준히 연락한다고 했는데.

맞다. 독립스타상 받을 때 공동 수상한 이상희 배우의 출연작 <남매>도, 처음에 다른 제목으로 시나리오가 집필됐을 때 근범이 형(<목격자의 밤>의 박근범 감독)이 보여줘서 읽었다. 근범이 형 작품이 나오면 거의 같이 모니터링을 한다. 최근작 <여고생>은 못했는데, 서울 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영되는 것으로 안다. 그때 보려고 한다.

2012년에 <목격자의 밤>, 2014년에 <소셜포비아>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기억이 궁금하다.

<목격자의 밤> 때는 같은 섹션 작품을 봤다. <김치>가 인상적이었다. 여유롭게 보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긴장했다. 그래도 그때의 그 기쁜 마음, 설렘이 떠오른다. <소셜포비아> 때는 <미생>을 찍고 있어서 GV에만 참석할 수 있었다. 서독제에 내 출연작이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다. 출연작 상영 때 말고도 서독제 상영작을 많이 봤다.

혹시 방문 당시 객석 분위기 같은 것도 떠오르는지.

분위기는 편하고 좋았다. 다만 <목격자의 밤> 때 어그부츠를 신고 갔는데 갑자기 GV에 참여하게 돼서 창피했다. (웃음) 서독제 GV는 워낙 편안하게 하곤 하니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도 앞에 나가니 창피하더라. 그래도 GV를 통해 관객과 소통한 것이 좋았다.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

'지훈이가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인셉션>처럼 생각하시길 바랐다. 팽이가 돌아가고~ 열린 결말로. (웃음)

2014년 독립스타상을 수상한 뒤 벌써 1년이 지났다. 당시와 현재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미생>을 촬영하던 중간에 상을 받은 건데, 되게 자신감이 생겼다. 연기를 하면서 작품상은 좀 받았는데 연기상은 처음 받은 거라서 너무 좋았다. 진짜 받아도 되는 건가 싶고, 근데 또 받고는 싶고. 최근 까지도 내 이름을 검색해서 서독제가 내 경력사항 페이지에서 없어 지진 않았나 찾아보고 그랬다(웃음). 독립영화를 찍으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겪었고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고생했다고 상을 주는 거 같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할까? 다른 분들 경우는 잘 모르지만, 연기하는 사람은, 항상 버틸 수



소셜포비아

있는 계기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바로 그 버틸 수 있는 계기를 여기서 얻었다.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상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본보기가 되라는 책임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잘 살아라', 그게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렇다면 서울독립영화제는 배우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까 말한 것과 비슷한 지점이 있다. 그냥 내 삶의 기준으로 말하면, 서울독립영화제는 내게 골인지점이 아니라 스타트지점이 아닐까 한다. 상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고 다시 한 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니까. 인생에서 한 번 더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수상작에 대해 얘기해 보자. <소셜포비아>는 인물의 전사나 감정이 많이 표현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연기했는지 궁금하다.

지웅이 마주한 사건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던 것 같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인터넷 용어들, 처음 듣는 화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화 속에 등장했다. 그걸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이에 섞이려고 노력했다. 작품 안에서 지웅은 리액션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구체적이지 않은 대신 리액션으로 드라마를 쌓아가려고 했다. 일단 '평범함'을 구축하려고 체중을 늘리는 시도를 했다.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초 밀접한 페이크다큐 느낌을 원했다. 특별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소셜포비아>는 지웅이 나오지 않는 장면이 거의 없다. 그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장면을 꼭 하나만 뽑는다면.



'현피' 멤버들이 다같이 한 줄로 서서 걷는 장면. 홍대에서 촬영했는데 다른 멤버들은 되게 당당하게 자기 캐릭터에 맞게 얘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짙게 걸어가는데, 나는 진짜로 내 자체가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용민이가 어깨동무를 해 줬고.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게 처음 본격적으로 사건에 들어가는 순간이고, 개인적으로도 감을 잡은 때였기 때문이다. 일단 홍대에서 한 줄로 걸어간다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그 순간 지용이 아니라 자연인 변요한처럼 느껴졌고, '아, 이거 되게 부끄러운데?' 싶은 감정이 고스란히 지용한테 넘어가면서 그 이후까지 쪽 이어졌다. 지용을 본격적으로 연기하게 된 시작점이었던 것 같다.

'이 작품이 내 터닝포인트' 싶은 작품을 꼽는다면 무엇일지 알고 싶다.

다른 감독님들이 섭섭할 수 있지만 딱 두 작품만 꼽자면, 하나는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연기를 그만해야지 할 때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난 <목격자의 밤>. 이 작품으로 몇 년 동안 가졌던 끌레르몽페랑영화제 상영이라는 목표를 이뤘다.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첫 장면인 <들개>. 항상 <들개>를 '스물일곱 살의 뿌리'라고 하는데, 그만큼 찍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다. 나의 한계점도 많이 봤고. 그래도 에너지를 계속 쏟다 보니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지 않았나 싶다. 이 두 작품을 통해 다른 많은 작품에 캐스팅되기도 했다.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는 생각이 든다. <토요근무>의 도연이나 <소셜포비아>의 지용처럼 디테일이 절제되고 무뎠직한 느낌의 연기부터 <재난영화>의 요한이나 <미생>의 한석울처럼 화려하고 액세서리를 갖춘 연기를 모두 소화한다. 차이를 두는 과정이 궁금하다.

연기 스승님이 '배우는 항상 옷을 잘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 역할에 맞게 스타일을 정립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물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미생>의 한석울 같은 경우는 단발머리에 땀땀이 셔츠를 입었다. 딱 봐도 발랄할 것 같은데 그 친구

가 슬프면 더 슬퍼야 한다. <목격자의 밤>의 지훈이처럼 힘들 것 같은 애가 한 번 웃을 때 더 기뻐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이란 똑같은 거 같다. 캐릭터 자체도, 하나의 문화를 은유하는 게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다. 아직 너무 어린데 이런 말을 하면 웃기지만, 연기하는 사람은 그 문화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금 말하는 <육룡이 나르샤> 속 이방지라는 인물의 말이나 움직임은 그 자체로 백성들의 한일 수 있다. <미생>의 한석울은 그 자체로 비타민처럼 밝은 기운, 직장인들에게 주는 희망일 수 있고.

배우를 하면서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런 건 아직 없다. 다만 요즘 오랫동안 연기하시는 배우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배우란 직업이 평생 할 수도 있지만 언제 또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직업이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음, 꼭 필요한 배우가 되고 싶지만 뜻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난 끝까지 할 거다. 내가 재미없어질 때까지. 재미가 없어지면 과감하게 안할 거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다.

진행 김송요 사진 송기영

장소협조 빈트리200.25 경북공점(인터뷰)

시청각(사진)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 영화들

서울독립영화제2015 특별초청 해외부문 '젊고 새로운 재능을 만나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일곱 편의 특별한 작품들.



카일리 블루스 Kaili Blues

간비 | 중국 | 2015 | Fiction | Color | DCP | 110min

중국 귀주의 카일리라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 언뜻 <무진 기행>을 떠올리게 하는 안개 낀 마을, 현실과 몽환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눈을 끄는 작품이다. 2015년 로카르노영화제 신인감독상 수상작으로, 중국의 떠오르는 신예 감독 간비의 연출 스타일과 중국 독립영화라는 낯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배니싱 포인트 Vanishing Point

자크라왈 닐탐롱 | 타일랜드, 네덜란드 | 2015 | Fiction | DCP | 100min

방콕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자크라왈 닐탐롱 감독의 신작으로, 로테르담영화제 타이거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 두 갈래로 사건을 풀고 엮는다. 작품에는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녹아들어 있다. 실험영화 감독, 미디어 아티스트로 불리곤 하는 닐탐롱 감독은 이 작품에서 가라오케 비디오와 대중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600 마일즈 600 Miles

가브리엘 립스티엔 | 멕시코 | 2015 | Fiction | DCP | 85min

멕시코의 거장 아르투로 립스티엔의 아들, 가브리엘 립스티엔이 감독한 스릴러. 제65회 베를린영화제 파노라마 개막작이다. 팀 로스가 멕시코의 군수 카르텔을 추적하다 납치당한 ATF요원을 연기한다.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캐릭터와 기존의 액션, 스릴러영화의 미덕을 잘 배치했다. 이 작품으로 데뷔한 가브리엘 립스티엔은 베를린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